

칼럼

김호경 뉴시스 사회부장



①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고양이가 죽은 날, 아내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려 풍네 중국집에 갔다. 굶지는 말자고 짬뽕을 시켜 얹지도 면발을 입 안에 밀어 넣는데, 어느 순간으로 하고 움음이 터져 나왔다. 눈물이 참을 수 없이 줄줄 흘러내려 짬뽕 그릇에 얼굴을 떨군 채 한참 어깨를 들썩였다. 눈물 젖은 짬뽕이 아니라, 어쩌면 코미디 같은 그 상황이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아내의 달랠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체할 도리가 없었다.

아내가 결혼 전 친동생과 함께 살면서 지난 14년간 키웠다는 고양이 '밀루'를 어느 날 집으로 데려왔다. 처제가 혼자 지내며 돌보던 중 무슨 시험을 보려 미국에 나가느라 연초에 우리 집에 맡기게 된 것이다. 나는 그전까지 반려동물을 제대로 키워본 적이 없었다. 더군다나 개는 좋아해도 고양이는 이런저런 선입견으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밀루가 온 지 며칠 되지 않아 그만 홀딱 빼지고 밀었다. 처음엔 다소 경계하고 탑색을 하던 이 살고양이는 곧 기분이 편안해 진 듯 서로 다가와 몸을 비벼댔다. 고양이 치고는 사람의 스킨십 특히 궁디팡팡'을 들키 좋아하는 이른바 개냥이였다. 내가 두 손으로 정성 들여 쓰다듬으면 눈을 짜고 그렁그렁 골골송을 불렀다. 노묘(老貓)인 덧인지

우마다거리지도 않고 언제나 짐짓으며 기쁨이 있었다.

집에 나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퇴근길이 더욱 즐거웠다. 심신이 기진맥진해서 일터에서 돌아오는 '형아'에게 밀루는 곁에서 늘 기쁨을 줬다. 밥 달라고, 놀아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애용거리는 개냥이가 집 안에 늘 평화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알면 더 사랑하게 되더니, 너석의 캐당당한 습성과 한편으로는 어리광 같은 행동 패턴을 알면 알수록 애착이 깊어졌다.

그런 고양이가 11월 들어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곡기마저 끊었다. 동물병원에 갔더니 훼장과 신장이 안 좋아 입원을 시켜야 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많아 발생하는 노환이다. 평소 나이를 키우기에는 집 공간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었지만, 병원의 비좁은 케이지 안에 깊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밀루를 보니 착잡하기 짝이 없었다.

노쇠한 고양이에게 수술은 엄두를 못 내고 수액만 맞게 하다 나흘 만에 집으로 데려왔다. 좀 기운을 차리는가 싶더니, 오래기지 못했다. 나날이 살이 빠져 피골이 상접한 몸을 용크린 채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정물처럼 고요히 지내는 노묘를 바라보는 심정은 끝 모를 울적함이었다. 우리 부부 둘 다 수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아내의 심정은 사실 나와 비교할 바가 아니었다.

밀루가 생후 3개월 때부터 함께 살았던 아내와 처제는 너석을 너누나도 잘 알기에 '울해를 못 넘길 것'이라고 포기한 채 눈물이 미를 날이 없었다. 나에게도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나는 도무지 믿기가 않았다. 그때 까지 나는 단 한 번 눈시울을 붉히기는커녕 단념을 하지 않았다.

"세계 최장수 고양이로 만들겠다"

는 흰소리를 해가며 아내를 설득해 다시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의사 선생님이 혈액검사를 하느라 앞다리에 주삿바늘을 끊고 잘 안 나오는 피를 오랫동안 뽑았더니, 나이는 기운이 하나도 없는 와중에도 얼마나 아픈지 입을 잔뜩 벌리고 이빨을 드러낸 채 고개를 내저으며 애용아용 얹는 소리를 냈다. 가슴이 미어졌다.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데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인연이 고통임을 새삼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별의 시간을 늦출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련만... 일주일 넘게 또 입원을 했으나 별 차도가 없고 오히려 악화된 듯해 퇴원을 시켰다. 바로 다음날부터 밀루는 의식이 희미해졌다. 눈은 뜨고 있지만 초점이 없고 겨우 숨만 불어있는 상태. 어쩌다 일어나도 다리에 힘을 못 주고 비틀거리다 금세 쓰러졌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임박했

다는 징후다. 토요일 아내가 잠시 외출한 시간에 밀루를 안아 침대에 눕혔다. 그 옆에 무릎을 펴고 앉아 숨이 곧 끊길 듯 말 듯하는 너석을 지켜보다 둘만 있으니 나도 모르게 작별 인사가 나왔다 "너를 만나서 형아가 정말 기뻤단다. 너무 늦게 만나서 그게 속상하구나. 항상 나에게 잘해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를 혼잣말처럼 건네다가 주책없이 눈물이 솟아졌다. 처음으로 껀이 껀이 하고 있는데, 너석이 풀연 고개를 틀더니 눈을 크게 뜨고 나를 기만해 웃었다. 잠깐 정신이 돌아와서 집사에게 말라 말라 고 괜찮다고 달래주는 것 같았다.

그런 일은 다음날 한 번 더 있었다. 내 손등에 오른쪽 뺨을 대고 누운 채 정신을 잃고 있던 너석이 내가 소리 내서 흐느끼자 문득 윈쪽 앞발을 들어 내 팔 위에 살며시 올리는 게 아닌가. 그 지경에도 사람을 위로해주는 것인지 기가 막혔다. 밀루가 이쁜 아래 상심은 끌망정 아내와 처제 앞에서 짐짓 의연한 척 감정을 겨우겨우 제어하고 있었는데 둑이 한 번 무너지니 겁잡을 수 없었다. 속수무책으로 물보가 된 나를 두고 몇 시간 뒤 너석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눈물 젖은 짬뽕을 먹었다.

그 뒤로 한동안 깊은 그리움과 상실감에 빠져 지냈다. 내가 겪게 되리라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소위 '펫 로스(Pet Loss) 증후군'이다. 일이 순에 잘 안 잡히고 사람들을 대면하기도 꺼려졌다. 지인을 만나 술과 담소를 나누며 괴로움을 잠시 잊다가도 허한 마음 속을 끈질기게 휘도는 잔비람에 한기를 느끼곤 했다. 맡은 업무와 직책이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연말 악속을 가급적 최소화했다.

社說

응급처치 이수율 높여야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야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실습교육 이수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니 전 국민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교육현황을 조사하고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매년 국내 심정지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심정지 발생 시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자동심장충격기 시행으로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설문 대상 1천 명 중 23명(23.3%)만 자동심장충격기 교육 이수 경험이 있었고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율도 44.9%에 불과했다.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조치순서'나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 위치' 등 기본적인 질차를 정확히 알

지 못했다. 일반인들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나 장소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정지 환자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자동 심장충격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다.

그러나 설문대상 1천 명 중 668명(66.8%)은 사는 곳 주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여부나 위치를 모르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자동심장충격기 아파트 건물 출입구 등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하고 의무 설치 대상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공무원·학교 교직원 등으로 한정된 의무교육 대상을 운전면허 취득·갱신자, 공공기관, 300명 이상 민간 사업장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전국민의 응급처치 생활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閏	운	운	閏	閏
餘	남	여	餘	餘
成	을	성	성	성
歲	이	해	해	세

▶뜻: 일년 24절기 나머지 시각을 모아 윤달로 하여 해를 이루었음.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청도프리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湖南新聞

대표 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647

팩스

(062) 222-5648

광고국

(062) 222-5644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트코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공직자의 청백리 정신

청백리(淸白吏)의 청(淸)은 '맑은 물처럼 티 없이 깨끗하다'는 뜻이고, 백(白)은 다른 빛깔에 전혀 물들지 않은 흰색으로 때 물지 않았다는 뜻이며, 리(吏)는 '관리' 혹은 '벼슬아치'라는 뜻이다. 백성을 위해 봉사하며 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품행이 단정하며 세상의 더러움과 주함에

물들지 않은 정신을 가진 관리를 말한다.

청백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가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난할 지라도 부정한 돈을 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부와 기회, 권력을 쉽게 얻기 위해 악용하지 않는 관리가 되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 목민집에서 "인자(仁者)는 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知者)는 인을 이롭게 여긴다"라고 했다.

인자(仁者)는 그 욕심이 크기 때문에 염리(廉吏)가 되고, 지혜가 짙고 생각이 깊은 자는 그 욕심이 적기 때문에 팀리(貪吏)가 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당장 눈앞에 있는 돈과 권력을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손에 훔 수 있을지 모

르지만 쉽게 얻은 것은 그만큼 쉽게 잃기 마련이다.

다산의 말처럼 정렴하고 정직한 태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명예로운 길을 택할 것이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내 직장, 내 가족까지도 모두 청렴결백하게 거느릴 수 있는 관리가 될 것이다.

박영남 / 화순소방서 현장대 응단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